

비어 있거든, 사랑으로 채워라

하루를 바꾸는
28개의 단편 소설집

전종채 지음

비어
있거든,

사랑으로
채워라

프롤로그

산골 소년의 첫사랑부터 청년과 중년의 간절함, 그리고 황혼에 선 노인들의 애환까지— 삶의 걸을 한 권에 모아 보았습니다. 스물여덟 개의 이야기를 징검다리 삼아 건너다 보면, 인생이라는 강이 발밑에서 속살을 드러내 보일 지도 모릅니다. 그 강을 어떻게 건널까. 어떻게 서로를 살릴까. 내 생각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사랑으로.

문장은 호흡과 닮았습니다. 달려온 문장은 숨이 차고, 오래 서 있던 문장은 무릎이 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표 하나를 더 두고, 말줄임표 하나를 건너며, 서로의 속도를 맞춥니다. 문장의 작은 표지들 위로 사랑이 다리를 놓습니다. 그 다리의 시작과 끝에는 늘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쓰는 작가와 읽는 독자. 독자의 들숨이 작가의 날숨과 맞닿는 순간, 한 줄의 문장은 비로소 온기를 뿜니다.

이야기들은 서로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났지만, 모두 같은 물길을 건넜습니다. 때 묻지 않은 산골 소년의 마음, 철새들의 이동, 동백꽃으로 피어난 여순 사건, 밥과 쉼을 나누고 싶은 따뜻한 마음들, 10분 늦어 사랑을 잃을 뻔한 청년, 제주 사려니 숲과 뉴욕 마라톤, 늙은 양계장 총각의 프로포즈, 자식 때문에 애타는 부모, 10년을 기다려 얻은 사랑, 절대자에 대한 그리움, 세령게티의 약육강식, 법의학자의 정의감까지— 모두가 한 문장의 변주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서로를 살리는가?” 내가 가진 대답은, 그리고 앞으로도 가질 대답은 ‘사랑’입니다.

이 책은 스물여덟 개의 물결이 남긴 소금빛 기록입니다. 페이지마다 남겨

둔 미세한 떨림과 설명되지 않은 여백. 그 자리는 사랑이 드나들 자리를 위해 비워 두었습니다. 만약 어떤 문장이 그대의 오래된 이름을 조용히 부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강의 물소리를 우리가 함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물아홉 번째 물결은 그대의 손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의 침묵으로, 내일의 한숨으로, 열은 미소 한 줄로— 비어 있는 칸을 채워 주세요. 등대는 이미 켜 두었습니다. 바다는 아직 넓고, 밤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천천히, 같이. 사랑으로.

2025년 뜨거운 여름, 전종채

프롤로그	4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1	9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2	17
비어 있거든, 사랑으로 채워라 1	25
비어 있거든, 사랑으로 채워라 2	37
사랑은 언제나 옳다	47
비탈에서도 꽃은 핀다	59
늦은 봄날의 프로포즈 1	67
늦은 봄날의 프로포즈 2	
- 푸니타의 노래	79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87
아버지의 마음	95
당산 밭, 나는 엄마다	103
부모는 문 앞까지만	115
세랭게티 고시원	125
슬퍼할 시간 3분	131
개구리섬 '와도'의 기적	139
공간이 사람을 바꾼다	151
석양엔 새들도 등지로 난다	161

어떤 식물원	169
태극오리 먼둥이와 노을이 1	177
태극오리 먼둥이와 노을이 2 - 다시 바이칼호로	185
동백꽃은 시들지 않는다	193
들국화는 누가 입히나?	199
늙은 늑대가 울었다	207
평일도 1	217
평일도 2	229
차가운 진실	237
파크골프 이야기	247
자화상	263
버진로드	271
나는 달릴 수 있어	281
나는 오늘도 걷는다	29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1	299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2	307
10분의 의미	319
작가 인터뷰	329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1

밤나무가 늘어선 밤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랫골 소년의 집에는 총각 선생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윗골 소녀의 집에는 처녀 선생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총각 선생님은 소년에게 편지를 하나 쥐어 주었습니다.

소년은 셋노란 개나리꽃 울타리를 지나 편지를 배달하러 길을 나섭니다. 새가 춤추듯 나는 발걸음입니다. 큰 샘을 지나갑니다. 샘물은 퐁퐁 솟고 주변으로 돌담이 둘러진 그곳은 마치 작은 정원처럼 고요했습니다. 윗골까지 가려면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도 지나야 합니다. 골목의 길가에는 민들레꽃이 무리 지어 피어 있고, 소년은 그 사이에서 하얀 민들레 한 줌을 꺾어 손에 찹니다. 마지막으로 긴 흙담을 돌면 탕자나무 울타리가 보입니다. 소녀의 집입니다. 흙담 밑에서는 어미 닭이 병아리들과 함께 모이를 쪼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병아리들이 어미 닭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소년은 소녀에게 조심스럽게 편지를 건넵니다. 그리고 손에 쥐었던 하얀 민들레도 함께 내밉니다. 소녀는 편지와 민들레를 받아 들고는 팔짝팔짝 뛰어가 처녀 선생님에게 전해 줍니다. 소년은 얼굴이 빨개진 채 쑥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치듯 나옵니다. 달리면서도 소년의 입가엔 끝내 하지 못한 말이 맴돌았습니다. “꽃은 너에게 준 거야.”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소녀가 처녀 선생님의 답장을 들고 배달하는 날입니다. 고무줄놀이하는 언니들 옆을 지나고, 구슬치기하는 오빠들 옆을 지나갑니다. 소녀도 나비가 나는 듯한 발걸음입니다. 소년은 토끼장 옆에서 토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어미 토끼와 새끼 토끼 몇 마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소녀를 발견한 소년은 조심스레 하얀 새끼 토끼 한 마리를 꺼내 건넵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 기겁했고, 처마 밑 등지에 있던 ‘집비둘기’까지 놀라 감나무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소녀는 처녀 선생님의 답장을 소년 앞에 던지듯 놓고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얀 것이 품에 닿는 순간, 놀람과 쑥스러움이 한

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뒤돌아보지 못한 채 달리면서도, 소녀는 소년의 웃는 얼굴과 하얀 토끼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소년은 귀여운 새끼 토끼를 무서워하는 소녀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사랑스럽기만 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소년과 소녀는 선생님들의 편지를 배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소녀와 함께 개울에 나갔습니다. 장맛비로 불어난 징검다리가 미끄러웠습니다. 소녀가 미끄러져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다행히 동네 어른이 구해 주었습니다. 소년은 젖은 손을 꼭 쥐고 ‘내가 먼저 손을 잡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시내 병원에 입원했고, 그날 이후 소식이 뚝 끊겼습니다. 소년은 그 일로 야단을 맞았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딸이 개울에 간 것이 소년 때문이라며,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외할머니 댁으로 보냈습니다. 소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더라.”

“징검다리에서 발을 헛디뎠는지?”

“아이구, 올해 비가 엄청 내렸지.”

빨랫방망이가 물 위를 탁탁 치는 소리에, 불어난 개울의 물결이 겹쳐 울렸습니다. 마을 앞 개울 빨래터에서 시작된 소문은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방학이 되면 처녀 선생님과 총각 선생님이 결혼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소녀의 가족이 도시로 이사 간다는 소문도 함께 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의 가족은 정말 도시로 이사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소년은 사람들 사이에서 소녀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떠나기 직전, 소녀가 뒤돌아보았습니다. 소년은 그 순간, 소녀가 자신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 소녀가 탄 차

는 이내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소년의 마음은 눈물 나도록 허전했습니다. 온 마을이 텅 빈 듯했습니다.

소년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매어 둔 염소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큰 눈을 더욱 부릅뜨고 뿔을 세우며 소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속이 상한 김에, 소년은 염소를 발로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서둘러 손으로 염소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염소는 주인의 속사정을 알 리 없다는 듯 혼자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암소도 배가 부른 듯 한가롭게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해가 지기 전에 암소를 끌고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소녀가 떠난 오늘, 모든 것이 심통이 납니다. 해질녘, 정적을 깨고 논에서 ‘뜸북이’가 뜸북, 뜸북 울고 있습니다. 들과 산을 공허하게 울리고 소년의 마음에 까지 메아리쳤습니다. 웬지 ‘뜸북이’의 울음이 슬퍼서 눈물이 났습니다. 순전히 ‘뜸북이’ 녀석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둔덕 너머 어둠이 번지듯, 소년의 가슴에도 빈자리가 저물었습니다.

방학이 되자, 처녀 선생님과 총각 선생님이 정말 결혼했다는 소문이 아랫골 샘터에서부터 퍼졌습니다. 새 학기가 되자 두 분 선생님은 도시로 발령을 받아 떠났습니다. 대신 할아버지 선생님과 할머니 선생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학교가 파하자 소년은 감자를 먹고, 소를 몰아 ‘얼치고개’를 넘었습니다. ‘얼치고개’에는 여우가 산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한낮이어도 여우가 나타날까 봐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개울과 징검다리가 있는 그곳엔 소녀의 추억도 있었습니다. 소년은 소녀의 기억이 떠오르자 힘이 났습니다.

개울에 도착한 소년은 풀잎을 따서 정성껏 모자를 엮었습니다. 그 사이에 예쁜 꽃도 함께 넣었습니다. 언젠가 여름 햇빛이 소녀의 머리를 곱게 물들이면, 그 꽃모자를 살며시 씌워 주고 싶었습니다. 소년은 냇가에 신을 벗어 두

고, 맑은 물에 발을 담그며 기다렸습니다. 그 애가 언젠가는 징검다리를 건너 오리라는 생각에 마음은 자꾸만 두근거렸습니다. 바람은 풀잎을 따라 낮게 흘렀고, 물살은 소년의 발목을 식혀 주었습니다.

흐르는 냇물 위로 노을이 비쳐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서쪽 하늘까지도 온통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정성껏 만든 예쁜 꽃모자를 조용히 개울물에 띄워 보냅니다. 소년의 슬픈 마음도 함께 떠내려갑니다. 소녀가 징검다리 위에 선다면, 꼭 꽃모자를 씌워 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꽃모자를 또 한 번 떠내려보내고, 소년은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만난다면…”

암소를 찾으러 다시 산 중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곳엔 도라지꽃이 군데 군데 피어 있었습니다. 흰색의 도라지꽃은 소녀처럼 청순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노랗게 물든 서녘 하늘을 바라보며, 문득 푸른 잉크를 찍어 노란 구름 편지지 위에 편지라도 쓰고 싶었습니다.

키가 훌쩍 큰 소년도 이제 시내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컵차를 타야 했습니다. 시냇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 내려갔습니다. 구불구불한 비포장길에는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을 마치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란 은행나무 잎이 낙엽 되어 바람에 우수수 날리던 오후였습니다. 그 길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노란 은행잎을 밟으며 다가오는, 눈에 익은 단발머리 소녀였습니다. 은행잎이 발밑에서 바스라지는 소리가 바람 소리에 섞였습니다. 소녀의 머리칼이 한 번 흔들릴 때마다 지난여름이 눈앞을 스쳐 갔습니다.

“혹시… 너, 밤골에서 살던…?”

소년은 반가움에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소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나, 여기로 전학 왔어. 아빠가 전근 오셨거든. 여기 오면 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

소년은 가슴에 무언가 가득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하얀 민들레와 흰 토끼, 그리고 그때 하지 못했던 말, “꽃은 너에게 준 거야.” 그 말이 다시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후로, 소년은 소녀와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점심시간마다 도서관에서 마주쳤고,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서도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버스를 놓친 두 아이는 정류장 옆 언덕을 함께 올랐습니다. 고드름이 매달린 산책길에서, 소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때, 그 하얀 민들레… 정말 나 주려고 꺾은 거였어?”

소년은 얼굴을 붉히면서 “응.”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호주머니에서 조그마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 사이에는 잘 말린 네잎 클로버가 있었습니다.

“이전… 내가 이사 가던 날, 주고 싶어서 가지고 갔던 선물이야. 그때는 건네지 못했어. 지금까지…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어.”

소년이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소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심스레 작은 수첩을 받아 들자,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처녀 선생님이랑 총각 선생님… 두 분 선생님을 찾아가 보자.”

소년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소녀의 옆에 살며시 앉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진 듯했습니다. 단지 하얀 눈송이들만이 두 아이의 어깨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말없이 서로를 챙기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봄이면 학교 둘레길의 벚꽃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벚꽃길을 달리기도 했습니다. 여름이면 개울가에 발을 담그고 물장구를 쳤습니다. 소년

은 징검다리와 꽃모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녀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학교 축제가 다가왔습니다. 소년이 소녀에게 ‘사랑 이야기’ 듀엣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러 오실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여러 명이 함께하는 연극을 하자고 했습니다. 소년은 내심 서운했고, 소녀는 그런 소년이 서운해서 며칠 동안 데면데면하게 지냈습니다. 소년은 일방적이었던 것을 사과했고, 소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같은 동아리에서 연극 무대에 함께 오르게 되었습니다. 소녀가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를 재미있게 패러디했습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명의 중학생들’로 개작했고, 왕자의 키스 대신 ‘백설공주’ 하고 부르며 깨어나도록 했습니다. 소녀가 백설공주가 되었고, 소년이 왕자가 되었습니다. ‘일곱 명의 중학생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대사 한 줄에도 서로의 눈빛이 마주치면 웃음이 났고, 그 웃음은 오래도록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그러던 중, 소녀의 아버지가 또 다른 도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이사였습니다. 소년은 이번만큼은 소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마지막 날, 학교 운동장에서 조용히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엔… 네가 먼저 편지 줄래?”

소년은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편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정지용 시를 적었어. 내가 좋아하는…”

〈호수 1〉

정지용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밖에.

소년이 손글씨로 옮겨 적은 시였습니다. 소녀는 그 편지를 조심스레 품에 안고 돌아섰습니다. 소녀는 품속의 편지가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엔, 한 번 더 뒤돌아보았습니다. 소년도, 소녀가 탄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운동장에, 혼자 남은 소년의 어깨 위에도 작은 네잎클로버 같은 눈송이 하나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해 봄, 학교 뒤 벚꽃길에서 만나자고 소녀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소년은 수줍게 말했습니다.

“다음 해는, 너랑 같은 학교 다니고 싶어.”

소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두 분 선생님도 꼭 찾아뵙고 싶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그 길, 바람을 타고 민들레 씨앗 몇 송이가 두 사람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오래전 하얀 꽃이, 다시 돌아온 듯했습니다. 소년은 벚꽃나무 가지를 꺾어 꽃모자를 만들었습니다. 소녀의 머리에 꽃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벚꽃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에게 흰 꽃잎을 날렸습니다.

이번엔 소년이 아니었고, 먼저 뒤돌아본 건 소녀였습니다.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2

라일락이 피던 봄

밤골의 소년과 소녀는 같은 캠퍼스에 진학했다. 라일락이 만발한 교정은 봄바람에 실려온 꽃향기로 가득했다. 조민주는 교양수업 ‘문학과 예술’이 시작되자마자 손을 들었다.

“교수님, 수업 전에 노래 한 곡 불러도 될까요?”

교수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민주가 옆자리의 상민을 바라보았다.

“같이 하자. ‘아침이슬’, 기억하지?”

“그걸 여기서…?”

“지금 아니면 언제 불러보겠어?”

둘은 강의실 앞에 나란히 섰다. 민주가 기타를 치기 시작했고, 상민이 낮은 음으로 화음을 엮었다.

“아침이슬…”

그들의 목소리는 교정을 넘어 햇살 사이로 번져갔다. 노래가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엔 라일락 향기처럼 투명한 설렘이 번졌다.

“민주야, 노래 잘했어.”

“상민아, 네 목소리가 더 좋았어. 네 심장 소리가 섞인 것 같았어.”

상민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날 이후로도, 그들은 언제나 나란히 앉았다.

사랑하는 마음

며칠 뒤, 사직공원 방송국의 ‘전국노래자랑 대학생 특집’.

“이름이요? 전상민, 조민주입니다. 듀엣이에요.”

무대 위에서 둘은 미소를 나눴다.

“사랑하는 마음,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청중의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무대 뒤에서 민주가 말했다.

“우리 정말 멋졌어. 상도 탔고.”

“네 노래 실력 덕분이야. 네가 나를 끌어올렸지.”

“아니, 네가 내 목소리에 숨결을 불어넣었어.”

그날 저녁, 둘은 방송국 옆 사직공원 벚꽃 그늘 아래 앉았다.꽃잎이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상민아,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목회자. 사람들에게 사랑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

“나는 작가야. 세상을 기록하는 사람.”

둘은 천천히 서로를 바라보았다.벚꽃잎이 하얗게 훑날리는 사이, 첫사랑의 빛이 고요히 스며들었다.

밤골의 여름

여름방학, 농촌봉사활동으로 함께 간 밤골은 하늘이 넓고 별이 가까운 마을이었다. 낮에는 논두렁에서 농약을 치고, 저녁이면 마을 회관에서 노래를 불렀다.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럼.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시잖아.”

민주가 기타를 치면 상민이 조용히 화음을 맞췄다. 그들의 노래가 끝나자 어르신들이 손뼉을 치며 말했다.

“아이고, 젊은 사람들 목소리에 사랑이 들었구먼!”

밤이 깊어 별들이 쏟아질 때, 둘은 우물가에 앉았다.

“상민아, 가끔 두려워. 세상이 이렇게 변해도 되는 걸까. 캠퍼스는 최루탄이 넘쳐나고.”

“두렵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게 옳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그게 꼭 싸워야 한다는 뜻이야?”

“어쩌면 그래야 할지도 몰라.”

민주는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그녀의 눈에 젖어들었다.

무등산의 가을

가을, 서석대 정상에 오르던 날. 장불재의 억새가 바람에 심하게 흔들렸다.

주상절리 바위 아래 규봉암에서 민주가 말했다.

“상민아, 여긴 이렇게 평화로운데 세상은 왜 그렇게 거칠까?”

“거칠지만 그 안에 진실이 있어. 나, 그걸 찾고 싶어.”

“너는 목회자보다 철학자 같애.”

“신앙이 철학보다 더 무거운 거야.”

둘은 절벽 끝에 나란히 앉았다. 민주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이 시, 꼭 소설에 인용할 거야. 제목은 ‘호수’.”

“정지용 시 말이지? ‘알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슬픈지….’ 그 시?”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낭독해줄게.”

〈호수〉

정지용

알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슬픈지.

하늘은 잔잔한데,

내 마음엔 파문이 일어요.

“이 시처럼… 혹시 우리에게도 슬픈 파문이 일게 될까?”

상민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캠퍼스의 겨울 호수

눈이 쉽게 없이 내리고 있었다. 캠퍼스는 고요했고, 호수는 하얀 장막 아래 깊게 잠들어 있었다. 상민과 민주는 천천히 호숫가를 걸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지고, 그 위로 눈송이가 다시 덮였다. 민주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렇게 고요한데도… 마음은 자꾸 불안해.”

상민은 하얗게 언 호수를 바라보았다.

“걸은 얼었지만, 저 아래 물은 아직 흐르고 있을 거야. 우리 마음도 그럴겠지. 걸으론 잠잠해 보여도, 속은 늘 흐르고 있잖아.”

“그건… 아직 살아 있다는 뜻이겠지.”

민주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엔 슬픔이 번졌다. 잠시 걸음을 멈추자, 눈발 사이로 중앙도서관이 멀리 희미하게 보였다. 민주가 입을 열었다.

“가끔 밤골 선생님들 생각이 나. 지난번 뵈었을 때 내게 시집을 선물해 주셨잖아.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글을 쓰는 일과 같다. 정직해야 한다.’고 하셨지.”

상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녀 선생님은 내게 말했어. ‘진짜 배움은 누군가의 눈물을 대신 짊어지는 거란다.’ 그 말씀, 아직도 마음에 남아.”

민주는 그 말을 되뇌며 고요히 웃었다.

“그분들의 그 사랑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거야.”

“그래. 그분들이 심어준 건, 사람을 향한 믿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지.”

바람이 불어 눈이 흩날렸다. 민주가 그의 코트를 꼭 붙잡았다.

“그럼 우리, 서로의 등불이 되자. 세상이 어두워도.”

상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내가 흔들릴 때마다 널 떠올릴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이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써오신 글들을 모아 첫 소설집을 출간하셨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출간을 결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꼬박 17년 동안 일기를 써왔어요. 처음에는 저 자신을 위한 기록이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원고가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글들이 제게 말을 걸어오는 듯했죠. 마치 뱃속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 발버둥 치듯, “이제는 생명을 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올해는 어떻게든 이 이야기들을 세상에 내놓는, ‘출산의 기쁨’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이 책의 시작이었어요.

‘비어 있거든, 사랑으로 채워라’라는 제목이 참 따뜻하면서도 철학적입니다. 수많은 단어 중 왜 하필 ‘비움’과 ‘채움’, 그리고 그 해답으로 ‘사랑’을 택하셨나요?

현대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언가에 끊임없이 얽매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 두려움, 이기심 같은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영혼을 갈증나게 하죠. 저는 그 해결책이 ‘비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워야 비로소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흙탕물이 담긴 그릇을 깨끗하게 하려면 맑은 새 물을 계속 부어 흘려보내야 하듯,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워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까 고민했을 때, 그 답은 오직 ‘사랑’뿐이더군요. 사랑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유일한 생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직에서 35년을 보낸 후 소설가로서 인생 2막을 여셨습니다. 출판 앞에 서던 선생님에서 원고지 앞에 앉는 작가가 된 지금, 글을 쓰는 행위는 작가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에 보면 처녀 선생님이 제자에게 ‘진짜 배움은 누군가의 눈물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라는 말을 해요. 돌이켜보면 저는 교단에 있을 때 지식 전달에 급급해서 그렇게 멋진 스승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 그런데 작가가 되어보니 비로소 배우의 자세를 갖게 되더군요. 제가 창조한 등장인물들이지만 그들이 건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히려 제가 배우게 되더라고요. 가르치는 사람에서 다시 배우는 사람이 되어보니, 하루하루가 재충전되고 행복한 느낌입니다.

오랜 교직 경험이 소설 곳곳에 묻어납니다. 학교에서 만났던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사연이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그려내는 데 어떤 영감을 주었나요?

교사로서 보낸 시간은 제 문학의 텃밭과도 같아요. 스쳐 지나간 수많은 제자들의 얼굴, 지역사회에서 겪었던 학부모님들의 사연들은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제 안에 남아 영감이 되었죠. 때로는 보람으로, 때로는 아쉬움으로 남았던 그 기억들이 제 안에서 숙성되고 재창조되어 소설 속 인물들의 이야기로 탄생했습니다.

집필 과정이 늘 순탄치만은 않으셨을 텐데, 글이 막히거나 마음이 비어버린 듯한 순간에는 어떻게 다시 펜을 잡으셨나요?

글이 막힐 때는 억지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예 주제가 다른 글을 쓰거나, 잠시 그 작품에서 마음을 거두고 거리를 두죠. 마치 사람 관계처럼 글과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할 때가 있더군요. 그렇게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신기하게도 좋은 장면들이 떠오르거나 꽉 막혀 있던 등장인물이 저에게 화해의 말을 걸어오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다시 펜을 잡습니다. 기다림이 곧 집필의 동력이 되는 셈이죠.

소설 속 인물들은 우리 주변의 평범하고 소외된 이웃들입니다. 특히 여순 사건이나 요양병원의 현실 같은 사회적 아픔을 다루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역사적 비극이나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에 대해 늘 부채 의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글을 통해서나마 그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미안함을 전하는 저만의 방식이었어요.

노년의 삶을 다룬 작품들을 보면 쓸쓸함보다는 활기차고 로맨틱한 면모가 돋보입니다. 작가님이 꿈꾸는 이상적인 ‘어른의 삶’이 투영된 것일까요?

맞습니다. 노년은 쇠락하는 시기가 아니라, 더 당당하고 자유로우며 성숙해질 수 있는 시기라고 믿어요. 육체적인 강건함은 젊은 시절보다 못하겠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삶의 활력은 더 깊고 진해질 수 있죠. 제 소설 〈늙은 늑대가 울었다〉에 나오는 장 노인이나 〈나는 오늘도 걷는다〉의 주 노인의 모습이 제가 지향하는 ‘좋은 어른’이에요. 실제로 저도 파크골프를 치면서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기도 합니다.

작품 속 배경 묘사가 참 생생합니다. 작가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거나 영감을 주었던 ‘공간’은 어디였나요?

시골, 숲, 자연, 그리고 낮은 풍경에서 큰 위로를 받곤 합니다. 제주도의 사려니숲길을 걸으며 〈공간이 사람을 바꾼다〉를 구상했고, 시골 하늘을 나는 기러기 떼를 보며 〈태극오리 먼둥이와 노을이〉를 떠올렸습니다. 특히 제 유년 시절의 농촌 풍경은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죠. 이 글들을 읽을 때마다 저 스스로가 가장 큰 치유를 받습니다. 저에게 이 공간들은 최선의 항염제이자 안식처입니다.

28편의 이야기 중 작가님의 자전적 경험이나 마음이 가장 많이 투영된 인물은 누구인가요?

여러 인물에 제 모습이 조각조각 녹아 있습니다. 표제작인 〈비어 있거든 사랑으로 채워라〉에서 나오는 “외로울 때 알게 된다. 만남의 소중함을”이라는

문장은 제 자전적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사랑은 언제나 옳다>의 주인공 하선을 통해 제가 깨달은 인생의 교훈을 말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가장 저와 닮은 인물을 꼽자면, <평일도 1, 2>에 나오는 ‘주 선생’입니다. 소설 속으로 제가 직접 걸어 들어간 것 같은, 제 분신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소설 속 갈등 해결의 열쇠는 주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현실에서는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끝내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용서와 사랑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걷는 것과 같아요. 바람처럼 자유롭고 싶다면, 우리 마음을 옥죄는 미움의 매듭을 자꾸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띠를 띠고 살면 하늘도 돕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흉내 낼 수 있는 가장 신성한 성품이 아닐까요.

이 작품을 통해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요즘 한류가 세계적인 대세인데요. 저는 이 흐름 속에서 문학을 통해 ‘K-휴머니즘’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K-휴머니즘이란 ‘생명의 존엄성’, ‘공동체의 연대’, 그리고 한국 특유의 ‘정과 나눔’입니다.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며, 사랑을 나눈다면 더 좋은 사회가 되겠죠.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독자분들이 책을 덮으며 이 K-휴머니즘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면, 작가로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거예요.

집필을 마치고 난 후, ‘인간 전종채’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책 속의 주인공들이 제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옵니다. 그들은 이제 저를 위로하고 치유해 주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 안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

을 곁에 두고 있으니, 저 또한 조금 더 행복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입니다. 요즘도 저는 마음속으로 주인공들의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어떤 순간, 어떤 위로가 되길 바라시나요?

사랑이 고파질 때, 마음이 허기질 때 이 책을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어 있거든 사랑으로 채워라>에서 강산이 “양심이 시키는 일은 미루면 안 돼”라고 말하며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읽으며 잠시 그 안에 머물러 보셨으면 해요. 좋은 사람과 사랑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큼 큰 위로는 없으니까요.

앞으로의 집필 계획이나 꿈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K-휴머니즘’—생명의 존엄, 연대, 정과 나눔—의 혼을 담은 작품을 계속 써나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문학의 뿌리이자 지향점입니다. 따뜻한 인간애가 살아 숨 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어 허전함을 느끼는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 책의 제목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비어 있거든,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욕심과 두려움을 비우고, 그 빈자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조심스럽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작가 홈페이지

비어 있거든, 사랑으로 채워라

하루를 바꾸는 28개의 단편 소설집

발행일 2025년 12월 29일

지은이 전종채

펴낸이 마형민

기획 페스트북 편집부

편집 곽하늘 이은주 김현우 조설인

디자인 김안석 표진아

펴낸곳 주식회사 페스트북

홈페이지 festbook.co.kr

편집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88

© 전종채 2025

ISBN 979-11-6929-963-3 03810

값 17,000원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페스트북은 작가중심주의를 고수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쓰도록 돕습니다.

creative@festbook.co.kr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보내주세요.